

시 강숙자

필사(筆寫)를 하다가

가다듬고
시집 속의 글귀
행과 연을 구분하며
적어 내리다
오자(誤字)라 생각하며
동그라미 그린 낱말 하나

일까
아닐까
사전 속을 들여다보다

아!
난
오늘
귀한 보석 하나 캐냈어.

약력

- ▲ '문학예술' 시 부문 등단
- ▲ 서은문학상, 전남문학상 수상
- ▲ KB 국민은행 가족문학제, KB 국민은행 스토리문학제 수상
- ▲ 한국문인협회 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
- ▲ 전남문인협회 이사, (사)서은(문병란)문학연구소 부이사장
- ▲ 시집: '가을 그녀가 내게로 온다', '첫물이 끓어오를 때'



시 옥정 김승환

보문호수의 가을

안개비 내리는 아침
안개 갠니 맑은 햇살이 눈부시다
호수는 쪽빛 하늘을 품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울처럼 고요하다
계절이 아쉬운 단풍잎은 마냥 서성이고

호수에 시린 마음을 살며시 내려놓는
몽계구름도 무언가 아쉬운 듯 몽그적거리는데
날아가는 철새도 차마 내려앉지 못하고
그리움은 물결처럼 동동 떠있다

가을의 주인이 된 산책로는
은행잎 양탄자를 깔아놓고
연인들의 발자국소리를 기다린다

나는 가을의 팔짱을 끼고
은행잎 양탄자를 밟으며
떠나야 할 때를 아는 낙엽처럼
어딘가로 떠나는 중이다
저 낙엽처럼
종착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약력

- ▲ 전남문협 감사, 전남시협 부회장, 광주문협 부회장
- ▲ 국제펜 광주 부회장, 나주예총 수석부회장
- ▲ 수상: 전남문학상, 전남시문학상, 국제펜광주문학상, 나주 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전남예술인상 등
- ▲ 시집: '추억의 목사골시장'
- ▲ 수필집: '수석과의 대화'
- ▲ 디카시집: '눈부신 사랑'



시 배순옥

팽나무 밑동 북쪽에 핀 이끼

이끼의 일생은 습(濕)을 만나는 것

팽나무 밑동 북쪽 경계 안의
너의 모습

녹색 몸피에
아무개가 목수의 마음으로 끌릴한 두 글자
운명에 파인 꽃글자

밭목 숨긴 퍼런 뿌리가 파랗게 보인다

소낙비 사이로 빠져나온 햇살에
후다닥 몸을 숨기는
너의 몸짓

그늘을 쫓고 그늘을 내리는
눈부신 허기

먹장구름이 지나가다 굵은 비를 내려준다

기어이, 나를 덮었다

약력

- ▲ 1998년 월간 '문학공간' 시 등단
- ▲ 광주시문학상, 정소파문학상, 광주문학상, 영호남문학상 등 수상
- ▲ 시집 '삼각변주곡', '팽나무 밑동 북쪽에 핀 이끼'
- ▲ 현 총장문학회 회장, 광주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 ▲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다형 김현승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등



수필 김경순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50여 년 전 첫 부임지에서 가정방문을 할 때였다. 교실 뒷정리를 하고 나오니 운동장에서 졸업기하던 여자 아이들이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이른다.
"선생님! 남자애들이 다 가버렸어요."
오늘 가정방문 가는 동네의 여학생 두 명에게 함께 가자고 했더니, 마을 아이들 모두 같이 가겠다고 조르는 바람에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남자애들이 말도 없이 가버린 것이다. 먼저 달려온 남아가 내 가방을 낚아채 들더니, 다음에 온 아이는 내 왼손을 잡는다. 그 뒤 비슷하게 달려온 두 아이는 내 오른손을 잡으려고 쟁탈전을 벌인다. 진이 양보하고 친구의 손을 잡는다. 그 잡은 손을 그네처럼 흔들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마음이 내게도 전해져 절로 미소가 나온다.
학교 앞에 있는 독 위로 올라섰다. 집에 간 줄 알았던 2학년 남자애들이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냇물 속으로 징검다리를 놓고 있었다. 셋이 한 조각 되어 넓적하고 큰 돌을 나른다. 영양실조에 걸려 쉬는 시간 화장실에 보내는 것을 깜박한 날이면 어김없이 앉은 자리에서 쉬를 해버리는 철이도 비척거리며 작은 돌을 옮긴다. 그런 꼬마들에게 박수를 보내듯 사뭇물이 반짝이며 도란거린다. 맨발로 건너지 않아서 좋다면 팔짱 팔 짝 뛰는 여자 친구들과 가슴이 찜찜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나는 그들의 안중에 없었다.
마지막 돌을 놓자 꼬마들은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팔을 벌려 꼬마들을 안았다. 아이들은 지난번에 온 큰 비로 돌이 떠내려갔는데 어른들이 아직 징검다리를 놓아주지 않아 저 아랫마을 시멘트 다리까지 가서 개울을 건너다닌다고 한다. 학교에 늦은 날에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맨발로 내를 건너는데 발이 '갑나게' 시리다. 아랫마을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할 때 멀고, 맨발로 물을 건너면 선생님 발이 시릴 테니 우리가 먼저 와서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나는 꼬마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작고 빨간 발의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수정같이 맑은 물 사이 사이에 놓여 있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꼬마들의 사랑이 담긴 징검다리. 나는 지금도 특별한 선물을 준 꼬마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촉촉이 젖어온다. 어느덧 그 꼬마들은 오륙십 대 중반이 되었겠지만, 그때의 고운 마음으로 기기도 정신을 발휘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꼬마였던 그들이 그립고 그립다.

약력

- ▲ 2001년 '한국수필', 2010년 '문학예술' 시 등단
- ▲ 수상: '문학세계' 수필 본상, 빛고를 책 읽는 시민 선정, 광주시장상 외 다수
- ▲ 한국문인협회 28대 대외협력위원, 광주문협·한국수필작가회 이사
- ▲ 징검다리수필·광주여류수필 회장 역임
- ▲ 세계펜클럽 회원, 현 광주여류수필 주간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